

부부갈등이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s Social Relationship

영천시청소년지원센터
팀 장 이 순 옥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 교수 김 춘 경

Yeongcheon City Youth Support Center
Team manager : Soon-Wook Lee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Univ.
Associate Prof. : Choon-Kyung Kim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해석

I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effect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s social relationship. The subjects were 1,600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A city of Kyungpook. They were surveyed by questionnaire and the data from 1,436 (89.8%) respondents were analysed.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pe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social relationship factors, there was a correlation in verbal aggression and violence, which are sub-factors of marital conflict. Between the sub-factors of marital conflict, verbal aggression negatively affected the closeness of sub-factor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Between the sub-factors of conflict, verbal aggression and violence negatively affected the peer social skills of children. Between the sub-factors of marital conflict, verbal aggression and violence negatively affected the school interest of the children.

주제어(Key Words): 부부관계(marital conflict),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부모는 아동이 맺는 최초의 인간관계이며, 부모가 제공하는 가정환경은 아동 발달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 부모와의 경험을 토대로 아동은 외부환경과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며, 사회를 구성하는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는 아동이 출생하여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경험하는 또래, 학교, 그 밖의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게 하고, 아동이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이정미, 2002).

또한 부모는 자녀의 기본적 인성발달은 물론, 사회에 대한 적응과 인간관계의 형성을 돕는 중요한 존재이다.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기본적 신뢰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본적 틀을 확립하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는 부모간의 관계를 모델링 하여 자신의 사회적 관계의 발전 및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대처 방식을 만들어 나가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및 부부간의 관계는 단순히 개인 간의 차원을 넘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다(김은향, 2005).

서로 다른 성장배경과 가치관, 경험을 지닌 부부에게 갈등 상황이 존재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부관계의 갈등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비해 아동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러 연구에서 부부간에 화목하면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수용적이고 민주적인 태도를 취하며, 부부간에 갈등이 심할 때, 자녀양육에 있어 통제적이고 간섭이 심하여, 관계를 악화시키게 된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부부갈등이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은 부모와 맺는 인간관계에 의해 성장 발달하면서, 전 생애에 걸쳐 또래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받게 된다.

부모간의 갈등을 관찰하는 것은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것이며, 적응문제의 발달과 연관된다. 결국, 많은 아동들이 불가피하게 부모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이승희, 2003), 심리적 고통으로 인하여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시사한다.

Grych와 Fincham(1990)은 아동이 가족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최초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부모로부터 사회적응 능력을 배우므로, 부모간의 갈등에 민감하고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불행한 결혼생활은 물론이고 행복한 부부사이에 도 존재하는 부부갈등은 자녀들의 심리적 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Davies & Cummings, 1994; Davies & Formanet, 2002; Kaplan, 2000).

부부갈등이 자녀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살펴보면, 가장 일차적인 관계인 부모-자녀 관계, 또래관계,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부부갈등이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자녀와의 초기 경험이 아동기의 대인관계 및 적응양식을 비롯한 성격 형성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아동의 주된 애착 인물과의 경험이 아동의 또래관계를 비롯한 대인관계나 자기 효능감, 친근감 등 개인의 신념형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대인관계의 만족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은정, 1996; 김혜진, 2003).

부부갈등이 있는 가정의 어머니는 양육태도에 일관성이 없고,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이 높으며(Holden & Ritchie, 1991), 부부갈등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대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Harold & Conger, 1997). 또한 부부갈등에 의해 부모-자녀 관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갈등으로 인해 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 좌절, 무기력감은 부모 자녀간의 상호 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부간의 갈등에서 생겨나는 부정적인 감정은 부모-자녀 관계에 전이되어 부모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Jouriles, Barling, & O'Leary, 1987).

아동은 주로 부모를 통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학습하며,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기 역할을 인식하고 어른들의 생활양식 및 행동양식을 모방함으로써 사회규범에 맞는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오성심, 이종승, 1982). 그러므로, 한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족, 특히 부모-자녀 관계를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자신이 경험했던 부모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타인들에게 적용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자녀와의 초기 경험이 아동기의 대인관계 및 적응양식을 비롯한 성격형성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아동의 주된 애착 인물과의 경험이 아동의 또래 관계를 비롯한 대인관계나 자기 효능감, 친근감 등 개인의 신념형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대인관계의 만족을 유지 내지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고은정, 1996). 부부간 갈등으로 인하여, 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영향은 자녀와의 관계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부갈등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동기는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이다. 그러나 아동이 점점 성장함에 따라 또래들과 어울리게 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과 효율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해 가며,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어 간다.

김은향(2005)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인기도와 우정의 질과 상관이 있었다. 부부갈등 전반에 대해 높게 지각한 아동들은 우정의 질이 낮았다고 한다.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아동의 인기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거부를 당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보다 부부갈등의 빈도와 지각된 위협, 자기비난, 그리고 부부갈등 전반에 대해 높게 지각하였다. 또한, 부부갈등의 빈도와 강도, 내용, 지각된 위협, 자기비난, 그리고 전체적인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아동들은 우정관계 질이 낮았으며, 해결과 대처효율성이 높을수록 우정관계 질이 높았다. Cummings, Iannotti와 Zahn-Waxler(1985)는 실험을 통해 두 성인간의 갈등을 거듭해서 목격한 아동이 이후에 같은 또래의 놀이 상대에게 공격성을 더 많이 드러낸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아동은 부모의 갈등 대처방법을 또래관계에서 적용하게 될 것이고,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행위는 또래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게 하여, 우정의 질이 낮아질 것이다. 부모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말다툼의 강도가 높은 경우 아동은 분노, 슬픔, 걱정과 무력감 등을 많이 느끼게 되며, 이러한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친구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저하된다(김경숙, 2000)고 한다.

김미숙(2003)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은 떨어진다.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한 아동들이 매사에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으며, 수동적이다. 또래관계에서는 비협조적이며,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고 불안하다.

부모-자녀 갈등 정도와 대인관계의 문제의 하위변인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부모-자녀 갈등이 심할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갈등이 평소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하고 지나치게 타인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며 쉽게 흥분하며 화를 내는 문제 행동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현명호, 최문선, 2002). Emery(1982)는 부부갈등이 부모-자녀 관계 중 부모의 아이 다루기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갈등이 심한 부부의 경우, 아이를 훈육하는 방식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아이를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도 부부간에 불일치가 심하다고 한다. 이렇듯 부부갈등은 아동과 부모 각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아동은 더욱 많은 심리적 문제를 지니게 되며, 부모 자녀관계를 비롯 또래관계를 맺는 사회적 능력도 저하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부부갈등이 아동의 학교흥미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기는 부모와의 관계 즉, 가정생활에서 벗어나 학교생

활을 시작하며, 사회적 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시기이다. 아동기의 주요한 발달과업은 청년기 및 성인기에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한다. 아동기 발달에 있어 학교생활은 매우 중요하며, 바람직한 자아개념, 사회관,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사회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 훈련의 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교 적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족관계이며, 그 중 부모의 화목한 관계는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긍정적 모델링이 된다. 그러나 부부갈등이 심할 경우, 부정적 모델링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부적응적인 문제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학교부적응 문제는 아동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가족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된다(조홍식, 김인숙, 김혜란, 김혜련, 신은주, 1997).

Belsky(1981)가 지각한 바와 같이 가족체계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관계와 부부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아동의 학교적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구자은(2000)은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관련 있다고 하였고, 최지은(2002)은 부모-자녀 관계 중 아버지와 청소년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신나나(2000)는 부모-자녀 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과 청소년의 자아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안정성은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수준과 상호작용 함으로써 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김혜진(2003)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갈등과 아동의 학교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교사와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학교수업과 학교규칙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학교적응의 각 하위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적절한 보살핌을 받고 애정적인 관계를 맺을 때,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고, 어머니의 과보호와 통제가 심할수록 아동이 학교수업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였지만, 최근까지 국내에서 부부갈등과 사회적 관계에 주목한 연구 중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학교 적응에 관한 세 가지 영역을 함께 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어 구체적인 영향 지수를 파악하고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가운데, 부부갈등이 아동의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학교 적응 간에 상관관계를 밝히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부부갈등이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히고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램 개발이나 상담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부부갈등과 사회적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부갈등이 아동의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부부갈등이 아동의 또래 교제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부부갈등이 아동의 학교흥미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경북의 A시에 있는 5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본 연구자가 담임교사에게 조사의 목적과 조사내용, 실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담임교사가 실시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본 설문지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초등학교 교사 3명에게 의뢰하여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수정하여 설문지를 완성한 후 2006년 3월 10일부터 2006년 4월 1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조사에 응한 학교를 중심으로 1,600부가 배부되었고, 그 중 응답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사례를 제외한 총 1,43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부모갈등 척도

부부관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s가 개발한 갈등 표출 척도(Conflict Tactics Scales)를 오은순(1996)이 번역한 부모갈등 척도를 사용하였다. 갈등표출 척도는 이성적 방법(Reasoning), 언어적 공격(Verbal Aggression), 폭력(Violence)의 세 영역으로 나뉘어지며,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외적 갈등, 즉 언어적 공격과 폭력에 해당되는 10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오은순(1996)의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9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2) 부모-아동 관계 척도

부모와 아동과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Hetherington과 Clingempeel(1992)이 개발한 'Family

Relationship'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개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주 양육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아동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친숙함(closeness) 영역 17문항, 갈등(conflict) 영역 7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친숙함 영역에서 높은 점수는 부모와 아동의 친밀함이 높다고 아동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갈등 영역에서의 높은 점수는 부모와 아동 사이의 갈등 수준이 높다고 아동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92, .78이었다.

3) 아동평가 척도

아동의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Hightower 등(1987)이 개발한 'Child Rating Scale(CRS)'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개 문항으로 3점 리커트 척도이며, 규칙 순응/산만, 움츠림/불안, 또래 교제 기술, 학교 흥미의 4개 영역으로 각각 6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역은 또래 교제 기술과 학교 흥미 영역이다. 또래 교제 기술(Peer Social Skills)영역은 또래를 사귀는데 있어서의 자신감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평가하는 것으로 아동의 또래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발췌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는 .71로 나타났으며, 학교 흥미(School Interest) 영역은 학교 관련 행동에서 아동의 지각과 흥미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발췌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는 .77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를 연구목적에 부합한 통계기법으로 분석하기 위해 SPSS 12.0을 사용하였다. 부부갈등과 아동의 사회적 관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부갈등이 아동의 사회적 관계 변인들 즉, 부모-자녀 관계, 또래 교제 기술, 학교 흥미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부부갈등과 아동의 사회적 관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부부갈등과 아동의 사회적 관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갈등의 각 하위요인인 언어적 공격과 폭력, 부모-자녀 관계의 하위요인인 친숙함과 갈등, 또래 교제 기술, 학교흥미를 변인으로 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따르면, 언어적 공격은 폭력($r=.725, p<.01$), 갈등

〈표 1〉 부부갈등과 아동의 사회적 관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구분	언어적 공격	폭력	또래 교제 기술	친숙함	갈등	학교 흥미
언어적 공격	1					
폭력	.725**	1				
친숙함	-.222**	-.181**	1			
갈등	.306**	.248**	-.178**	1		
또래 교제 기술	-.197**	-.207**	.274**	-.178**	1	
학교 흥미	-.224**	-.198**	.320**	-.219**	.365**	1

**p<.01

($r=.306, p<.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친숙함($r=-.222, p<.01$), 또래 교제 기술($r=-.197, p<.01$), 학교 흥미($r=-.224, p<.01$)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폭력은 갈등($r=.248, p<.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친숙함($r=-.161, p<.01$), 또래 교제 기술($r=-.207, p<.01$), 학교 흥미($r=-.198, p<.01$)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2. 부부갈등이 아동의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이 아동의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갈등의 하위요인인 언어적 공격과 폭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부모-자녀 관계의 하위요인인 친숙함과 갈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갈등의 각 하위요인이 부모-자녀 관계의 하위요인을 예측하는 정도는 〈표 2〉와 같다.

친숙함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언어적 공격($\beta=-.191, p<.001$)이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친숙함을 예측해주는 변인의 설명력은 4.9%로 나타났다. 갈등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표 2〉 부부갈등이 아동의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예측변인	b	se	β	t	p	F	수정된 R ²
친숙함	언어적 공격	-.218	.043	-.191	-5.122	.000	37.782	.049
	폭력	-.047	.042	-.042	-1.126	.260		
갈등	언어적 공격	.327	.045	.265	7.275	.000	75.348	.094
	폭력	.068	.044	.056	1.538	.124		

〈표 3〉 부부갈등이 아동의 또래 교제 기술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예측변인	b	se	β	t	p	F	수정된 R ²
또래 교제 기술	언어적 공격	-.063	.024	-.098	-2.626	.009	35.718	.046
	폭력	-.085	.023	-.136	-3.631	.000		

〈표 4〉 부부갈등이 아동의 학교 흥미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예측변인	b	se	β	t	p	F	수정된 R ²
학교 흥미	언어적 공격	-.130	.029	-.169	-4.535	.000	39.865	.051
	폭력	-.056	.028	-.075	-2.012	.044		

언어적 공격($\beta=.265, p<.001$)이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갈등을 예측해 주는 변인의 설명력은 9.4%로 나타났다.

3. 부부갈등이 아동의 또래 교제 기술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이 아동의 또래 교제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언어적 공격, 폭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또래 교제 기술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갈등의 각 하위요인이 또래 교제 기술을 예측하는 정도는 〈표 3〉와 같다.

〈표 3〉을 살펴보면, 또래 교제 기술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언어적 공격($\beta=-.098, p<.05$), 폭력($\beta=-.136, p<.001$)이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또래 교제 기술을 예측하는 변인의 설명력은 4.6%로 나타났다.

4. 부부갈등이 아동의 학교 흥미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이 아동의 학교 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언어적 공격, 폭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교 흥미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갈등의 각 하위요인이 학교 흥미를 예측하는 정도는 〈표 4〉와 같다. 학교 흥미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언어적 공격($\beta=-.169, p<.001$), 폭력($\beta=-.075, p<.001$)이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학교 흥미를 예측하는 변인의 설명력은 5.1%이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사회적 관계 변인과 상관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부부갈등이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

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부부갈등과 사회적 관계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부부갈등 하위요인 중 언어적 공격이 심할수록 부부간에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부모-자녀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공격이 심할수록 아동은 부모-자녀관계에서 친숙함을 경험할 가능성이 줄어들며, 또래 교체 기술 또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학교에 대한 흥미도 줄어든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부부갈등 하위요인 중 폭력의 경우, 언어적 공격과 마찬가지로, 폭력이 심할수록 아동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친숙함을 경험할 가능성이 줄어들며, 또래 교체 기술, 학교에 대한 흥미도 줄어든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낮은 사회적 기능과 연관된다고 본 박수잔(1996)의 연구와 일치하며, 아동이 부부갈등을 자주 목격할수록 자녀의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과 학교에서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조영란(1993)의 연구와 일치한다. 부부갈등이 아동의 사회적 관계와 밀접한 상관을 드러내며, 부부갈등에 대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부부갈등이 아동의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은 부모-자녀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갈등 중 언어적 공격이 심할수록 부모-자녀 관계의 하위요인인 친숙함이 낮아져 아동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부모와 친밀한 애정관계를 형성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부모-자녀 관계의 하위요인인 갈등 또한 언어적 공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언어적 공격이 심할수록 부모-자녀 관계의 하위요인인 갈등이 높아진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부모간의 갈등으로 인한 감정이나 대처방법을 자녀에게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며, 친숙하고 애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지 않음을 보여준다. 부모-자녀 관계를 양육태도로 측정하여 부모간의 갈등을 연구한 Jouriles와 Farris(1992)는 부모간의 갈등이 높고, 부부관계에서 불만족하면 아동을 양육할 때 부정적인 태도와 비수용적이고 무감각한 양육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연구와 일치하며, 부모간의 갈등이 있으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적이지 못하여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한 Davies와 Cummings(1994)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부모간의 갈등은 부부의 심리적 만족 뿐 아니라 자녀양육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변영인, 1994)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부부갈등은 불화한 부모-자녀 관계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윤중권, 2002)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부부갈등 하위요인 중 폭력은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한 쪽 배우자는 자녀에게 집착하고 자녀를 더 잘 돌보는 현상을 드러내어 자녀가 부모-자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언어적 폭력 보다 덜 느껴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세째, 부부갈등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은 아동의 또래 교체 기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교체 기술은 부부갈등의 하위요인인 외현적 공격과 폭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부모갈등이 심할수록, 또래 교체 기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효은(2006)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은 친구와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을 가정 내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하게 되면 갈등과 긴장을 잘 해결하지 못하여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정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부모의 폭력을 관찰하는 것이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는 것보다 아동의 공격성에 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부모간의 갈등상황에서 부모 사이의 폭력이나 말다툼 등 높은 강도의 갈등은 친구관계에서 공격성이나 또래 괴롭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김경숙(200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박보경(2003)은 아동이 부모간의 갈등에 빈번히 노출되고, 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친구들에게 더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고, 그 결과 친구관계도 악화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간의 갈등이 높을수록 아동은 친구관계에서 긍정적 감정을 낮게 지각하였고, 친구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며(김은향, 2005; 김혜정, 2005) 또래에 대한 애착도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홍주영, 도현심, 2002)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부부갈등이 심한 가정의 아동들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부모의 잘못된 갈등대처 방법을 또래관계에 적용하지 않도록 올바른 대처방법을 학습할 기회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부부갈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은 아동의 학교흥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갈등 하위요인인 언어적 공격과 폭력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갈등이 심할수록, 학교흥미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갈등 경험이 아동에게 정서적 불안정감을 초래하여 아동의 적응문제를 일으킨다(Davies & Cummings, 1994)는 선행연구 결과에 의해 이러한 결과는 지지될 수 있다. 이는 부부갈등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과 학교에서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며, 학업성취나 적응 문제(Emery & O'Leary, 1982; 조영란, 1993)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부부갈등 자체

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부갈등이 아동의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부모-자녀 관계의 행동 패턴은 또래관계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이 소속된 가장 큰 사회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사회적 관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부부갈등을 겪는 가정의 아동을 돕기 위한 개입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중심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이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이는 반대로 부부의 화목한 결혼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가 갈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때,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아동은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부모로부터 학습하게 될 것이며, 부부갈등의 긍정적 대처방법은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아동이 또래 관계를 맺는 방법에서도 부모와의 관계 양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 긍정적이고 친밀한 또래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어떠한 사회적 관계에서도 갈등상황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 갈등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성장한 아동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화목한 가정생활을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며, 부부갈등으로 인한 아동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혼가정이나 결손가정의 아동의 경우, 이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제도나 인식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갈등 가정 아동은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으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을 주위에서 쉽게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할 가능성이 많다. 이에 갈등 가정 아동이 겪는 어려움에 관한 교사교육이 요구되며, 아동들이 부모의 갈등에 대해 스스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부모들에게 올바른 부부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정서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며, 부부갈등으로 인하여, 아동이 겪는 문제의 심각성과 파급효과를 인식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과 논의를 통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부 아동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제한점을 가지며, 더 많은 사회적 관계의 변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연구대상으로 다양한 변인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부부갈등과 아동의 사회적 관계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은정(1996).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기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2000).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족한 일반집단과 집단따돌림 가해 집단간의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수(2002). 부부갈등과 청소년비행 특성과의 상관 조사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숙(2003).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향(2005).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대인 불안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복(1994). 아동후기 가정갈등과 가출충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김혜정(2005).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진(2003).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관계 및 아동의 학교적응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은(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의 갈등과 부모자녀관계 및 친구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보경(2003).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부갈등과 또래 괴롭힘. 아동학회지, 23(5), 51-64.
- 박수잔(1996).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의 심리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영인(1994).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및 양육태도와 일탈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나나(2000). 부모-자녀 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과 청소년의 자아개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서적 특성의 관계. 서울:행동과학연구소
- 윤중권(2002). 부모의 대상관계가 부부갈등 및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희(2003). 부부갈등 및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행동문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미(2002). 부모간의 갈등과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부적응. 충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영란(1993). 부부갈등과 자녀의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홍식, 김인숙, 김혜란, 김혜련, 신은주(1997). 가족복지학. 서울:학지사.
- 최지은(200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에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명호, 최문선(2002).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15, 63-94.
- 홍주영, 도현심(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25-136.
- Belsky, J. (1981). *Early socialization and the discipline controversy*.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 Cummings, E. M., Iannotti, R. J., & Zahn-Waxler, C. (1985). The influence of conflict between adults on the emotions and aggression of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1, 495-507.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avies, P. T., & Forman, E. M. (2002). Children's patterns of preserving emotional security in the interparental subsystem. *Child development*, 73(6), 1880-1903.
- Donna J. Bee-Gates (1998). *Parent beliefs about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 The Stanford University.
- Emery, R. E.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2), 310-330.
- Emery, R. E., & O'Leary, K. D. (1982). Children's perceptions of marital discord and behavior problems of boys an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11-24.
- Gordon T. H., Katherine H. S., Marcie C. Goeke-Morey, & Cummings, E. M. (2004). Marital conflict, child emotional security about family relationships and child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13, 350-376.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Harold, G. T., & Conger, R. D. (1997).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distress: The role of adolescent awareness. *Child Development*, 68(2), 333-350.
- Holden, G. W., & Ritchie, K. L. (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Evidence from battered women. *Child Development*, 62, 311-327.
- Joan Ann Kaplan (2000). *Family relationships and parent-child alliances: Their role in shaping the connections between parent's marriage and children's adap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Johnston, J. R., Gonzalez, R., & Campbell, L. E. (1987). Ongoing post-divorce conflict and child disturba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497-509.
- Jouriles, E. N., Barling J., O'Leary, K. D. (1987). Predicting child behavior problem in maritally violent famil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165-173.
- Jouriles, E. N., & Farris, A. M. (1992).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subsequent parent-son interactions. *Behavior Therapy*, 23, 355-374.

(2006년 7월 31일 접수, 2006년 9월 26일 채택)